

계절의 시간, 봄의 끝자락에서

[공개란]

[그것을 따라가면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 그러니 함부로 가면 안되겠지? "

[외관]



지인 지원

[이름]

마이세나 클로로포스

Mycena Chlorophos

[나이]

외관상 10대 후반

[성별/호칭]

불명 / 자유롭게

[키/몸무게]

164cm / 52kg

[포켓몬]

자마슈

[성격]

[영리한/장난끼 많은/얌미운]

마이세나는 꽤 장난기가 많은 성격입니다. 평소에 장난을 좋아해 무서운 이야기라던가 깜짝 놀래키는 등 자주 장난을 치며 그거에 놀라는 모습을 보곤 재미있다고 할 만큼 짓궂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불쾌해 할 장난까지 치지 않습니다. 상대가 싫어한다면 진심으로 사과할테죠.

장난을 많이 치는 만큼 잔머리도 좋아 가끔 자신이 곤란한 상황이 올 때마다 잔머리를 굴리거나 약간의 거짓말과 연기로 그 상황을 모면하는 영악한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느긋한/행동이 여유로운/당황하지 않는]

말투도 행동도 여유롭다 보니 무척 긴장감이 없어 보입니다. 급해야 할 상황에도 느긋해 한다면 뛰어야 할 상황에도 걸어가듯 모습을 보자면 피카츄인지 개을로인지 구분이 안 갈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거나 당황할법한 일에도 "우와~" 라며 눈을 깜빡이는 게 전부입니다.

[변덕스러운/제멋대로인/고집이 있는]

함께 지내다 보면 상당히 변덕스럽고 제멋대로인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랬다저랬다 생각을 바꾸거나 흥미 있어 하다가도 갑자기 흥미를 잃기도 하며 상당히 변덕스럽지만 한번 꽃힌 게 생긴다면 바로 돌진하기도 합니다. 그땐 주변에서 말려도 안 듣는 고집스러운 면도 보입니다.

[기타]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이 섬에는 밤이 되면 별빛처럼 빛나는 버섯이 한가득 피어있는 숲이 있다고.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 속으면 안된다고.
그 숲은 한번 들어가면 되돌아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가...**

그가 살고 있는 숲은 꽤나 악명이 자자합니다.

밤이 되면 저 멀리에서도 눈에 뭇만큼 빛나는 버섯들이 여기저기 피어있어 정말이지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숲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소문이 돌고있죠.

그 숲 안에 있는 저택에서 살던 부부라거나 항상 숲에 놀러가던 사람이라거나... 그 숲에 자주 오고 가는게 보였다는 사람은 어느순간부터 마을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딱 한사람만 빼면 말이예요.

너도 사라지고 싶은가보지?

그 숲에는 딱 한사람. 마이세나라는 아이만 홀로 살고있습니다. 이따금씩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항상 숲 안에서 지내는 듯 했습니다.

마이세나는 여러분을 만날때면 자주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숲에 들어온 이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는 하지.

어디로 갔는지 나도 몰라.

겁도 없이 들어오면 너도 사라질지도?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 사라지다보니 마이세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무서운 아이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아마 이 섬에서 좀 더 오래 산 사람들이라면 알거예요.

마이세나는 몇십년 전에도 언제나 지금처럼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었으니까요.

모두가 사라지는 숲에서 오로지 마이세나만이 변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그 숲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

마이세나는 언제나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덕분에 표정이 보이지 않다보니 안그래도 으스스한 소문에 괜한 두려움을 더해주고 있는 모양이지만 정작 본인은 그게 더 재미있다고 하며 항상 가면을 벗지 않습니다. 가면 뒤에 뭘 숨기고 있냐고요? 아뇨? 더 무서워 하라고 쓰는거예요! 절대 안벗을거라네요.

*

으스스한 소문이 돌고있긴 하지만 정작 누군가가 다치거나 아프다면 주머니에서 알맞는 약을 꺼내주곤 합니다.

직접 만든건지 아니면 어디서 구한건지는 알 수 없지만요.

병이나 약초에 대한 지식이 무척 높은 듯 하며 마을에 병이 돌면 내려와 환자들을 살피고 약을 건네 주고 가곤 합니다.

*

그의 주변이나 신체에서 이따금씩 빛나는 버섯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의 특성인 포자 때문인 듯 하며 꽤나 환하게 빛납니다.

그가 다니는 길에 그의 포자가 떨어지면서 빛나는 버섯이 한껏 자란 길이 만들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몸에 자라난 버섯을 보면 괜찮은건가 싶지만 툭툭 털어버리면 금방 사라지는 모양입니다.

가끔 손으로 다른 사람을 툭 건드려 버섯이 자라나게 하곤 합니다.

그가 들고있는 램프 속 버섯도 포자로 인해 피어난 버섯입니다.

[소지품]

천주머니

: 안에 무언가 들어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램프

: 안에 발광하는 버섯이 자라나있다. 꽤나 환하게 빛이 난다.

약주머니

: 먹는약이라거나 바르는 약 등 이것저것 들어있는 주머니. 달달한 맛이 나는걸 보면 약초와 꽃가루를 섞어 만든 듯 하다.

[관계]

선관 명: 소태랑

관계: 이따금씩 버섯숲에서 만나곤 한 분이벌레. 들어오지 말라고 겁을 주면 겁을 먹은 티를 내면서도 자길 보고 함께 내려가자며 손을 내밀던 성격 하나는 좋은 아이.
꽤나 혼자서 이리저리 노력하고 사는 것 같던데... 왜 진화를 안했지? 저 나이가 되어도 1차 진화조차 못하는건 꽤나 별난 경우다보니 알게 모르게 살펴보게 되는 모양.

동시 합격 여부: X

[특성]

포자

[기술]

대타출동

버섯포자

힘흡수

꽃가루경단

[능력치]

[비전투 능력치]

물리 ■□□□□

특수 ■□□□□

지식 ■■■■■■

행운 ■■■■■■

총합: 12

[전투 능력치]

HP ■■□□□

명중력 ■■■■■■

회피력 ■■■■■■

공격력 □□□□□

방어력 ■□□□□

스피드 ■■■■■■

